

오늘의 날씨와 생활

4월 17일 수요일 음 3월 13일 (5물)

기상정보

호리고 가끔 비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중국 상하이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흐리고 오전까지 비가 오다가 북서쪽지역부터 차차 그치겠으며 오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오전	강수 확률	오후
60%	제주	20%
60%	성산	20%
60%	고산	20%
60%	서귀포	20%

주간예보

내일

모레

구름 조금

맑음

13/23℃

14/21℃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감기가능지수

경고

보통

월드뉴스

‘파리의 상징·인류의 유산’ 불타다

노트르담 대성당 대화재

프랑스 파리의 상징으로 최대 관광 명소 중 한 곳이자 역사적 장소인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15일 저녁(현지 시간) 큰불이나 지붕과 첨탑이 붕괴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파리시와 프랑스 내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50분께 파리 구도심 센 강변의 시테섬에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의 첨탑 쪽에서 시커먼 연기와 함께 불길의 솟구쳤다.

경찰은 즉각 대성당 주변의 관광객과 시민들을 대피시켰고, 소방대가 출동해 진화작업을 벌였지만 네 시간 넘게 불은 계속됐다.

건물 전면의 주요 구조물은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당 내부 목재 장식 등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진화작업은 어려움을 겪었다.

소방당국은 건물 붕괴 위험 때문에 공중에서 많은 양의 물을 뿌리는 것은



지난 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큰불이 난 모습.

해결 방법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안 이달고 파리 시장은 소방당국이 (전면부) 주요 구조물로 불길이 번지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불이 난지 1시간여 뒤 나무와 납으로 만들어진 첨탑이 무너졌을 때는 파리 도심 전역에서 노트르담 대성당 위로 치솟는 짙은 연기를 볼 수 있을 정도였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경찰은 보수 공사를 위해 설치한 시설물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면서 사고에 무게를 두고 있다.

건강&생활



강 준 혁
한의학 박사

난임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여도 임신이 안 되는 경우를 말한다.

현대에 결혼이 늦어지고 초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이 더 많아지고 환경오염이나 여러 가지 사회 환경에 따라서 난임이 더 늘어나고 있다.

저 출산도 초저 출산 시대라서 앞으로 2030년대에는 초등학교 교실에 학생 수가 지금의 반으로 줄어들고 점점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예상이다.

국가에서는 정책적으로 난임 치료에 예산을 늘리고 있고 한의학 치료에도 예산을 배정하는 조례안을 만

한의학의 난임 치료

들려고 하고 있는 추세이다.

생명을 주는 일은 하늘에서 주는 것이다. 의사가 의학의 힘으로 임신을 하게 하는 것 역시 생명을 이 세상에 나오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전적으로 의사의 영역이 아닌 것이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는 있다. 임신이 힘든 난임 부부를 임신을 잘 할 수 있도록 몸 상태를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난소기능이나 자궁의 상태를 좋게 해서 원활한 호르몬 분비가 되어 수정이 잘되게 하거나 그 수정란이 착상이 잘 되게 할 수 있게 해서 태아가 자궁 안에서 편안하게 안데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

물론, 기질적으로 난관이 막혔다거나 남성의 무정자증 같은 경우는 현대의학의 기술로 시술으로써 난임 치료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별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는데도 난임으로 고생하는 부부들에

게는 가장 자연스럽게 몸을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만들면서 임신을 할 수 있게 한의학 치료를 할 수 있다.

필자는 20년간 임신을 하면서 임신 치료가 주된 목표가 아니었는데, 임신이 되는 부부도 보았다.

10년 정도 임신이 안 되어서 자포자기 상태에서 여성이 소화기능도 안 좋아서 컨디션을 좋아지게 했더니 자연스레 임신이 된 경우도 있고, 그 인연으로 주위에 난임 부부가 와서 의도적으로 난임 치료를 해줘서 임신이 된 경우도 종종 있었다.

냉증으로 인한 자궁을 따뜻하게 하고 어혈이나 노폐물의 배출을 돕고 난소의 기능을 활성화 시킨다거나 자궁주변의 혈액순환을 도와 자궁 내막을 튼튼하게 한다.

이렇게 가장 임신을 잘 할 수 있도록 몸 상태를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 주어서 산모와 태아가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한다.

요즘은 환경오염이 심해지고 생활습관의 변화나 음식섭취의 불균형 등으로 인해서 냉증이 많아졌고 특히, 여성들이 더 심해서 생리통이나 수족냉증과 더불어 난임도 많아졌다.

요즘 산부인과에서 난임 시술하는 것도 많다.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시술이나 다 의학의 힘을 빌려서 난임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시술을 할 때에도 궁극적으로 아기 씨앗이 자라날 자궁을 튼튼히 하는 한의학적인 치료를 병행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도 시험관 시술을 하기 전에 몸을 튼튼히 만든다고 한약을 복용하고 한의학 치료를 받아서 건강한 출산을 한 부부도 있었다.

의사로서 무조건 자신이 하는 방법이 옳다고 고집을 피우지 않고 안전하고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열린마당

2019 재일제주인 청소년 교류캠프를 마치며



송 화 정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

벚꽃이 만개하기 전인 지난달 27일,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에서는 제주출신 재일동포 청소년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2019 재일제주인 청소년 교류캠프를 개최했다. 고향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제주대 학생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3박 4일 동안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일본 관동, 관서 지방의 제주출신 중·고등학교 청소년 14명이 참가했다.

이번 방문한 청소년들은 재일제주인 2세부터 4세로 모국, 혹은 제주를 방문한 경험이 없거나, 와 본 적이 있어도 아주 어렸을 때여서 그다지 기억이 없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인지 처음 접하는 삼성형에 관한 신화나 제주4·3사건에 관한 역사, 민속촌의 제주의 옛 모습을 진

지하고 흥미롭게 바라보았다.

그렇게 3박 4일의 일정을 마칠 때 즈음, 참가자 중 유독 조용하고 말이 없던 한 학생에게 이번 캠프에 소감을 물어봤을 때, 그 학생은 지금까지 한 번도 조국에 대해 생각해보는 적이 없었는데 제주의 문화와 역사를 접하면서 조국의 의미를 재확인 했다고 했다. 또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한국에 대해 알아 가고 싶다고도 했다.

일본 어학연수 당시 비슷한 포레의 일본에서 나고 자란 사촌들과 생활하면서 일본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고향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느꼈었다. 하지만 이번 기회처럼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주와 학생들과 교류하고 일본 각지의 재일제주인 청소년들이 고향 제주를 방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라며 고국에 대한 관심과 자기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번 캠프를 통해 느낄 수 있었다.

제주에 또 오고 싶다고 말하던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들이 고향 제주를 찾기를 희망해 본다.

친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강 민 선
제주시 한림읍사무소

당신은 친절하십니까. 섣뚱 대답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친절한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물론이면 즉시 네! 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렇듯 우리는 내가 친절한 것보다 타인이 나에게 친절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매우 크다.

기대가 컸기 때문에 실망도 큰데 민원인 불만의 유형을 보면 민원인의 기대에 못 미치는 서비스, 지연 서비스, 직원의 실수와 무례함, 약속 미 이행, 단정적 거절, 책임전가 등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이다.

100명의 불만 민원인 가운데 오직 4명만이 불만을 표현한다는 조사결과도 있듯이 많은 민원인은 불만을 가지고도 표현하지 않는다. 따라서 불만을 나타내는 민원인은 우리에게 소중한 보석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불평불만 하는 민원인을 만족하게 하는 방법으로 첫 번째 먼저 사과를 한다. 죄송 합니다 이 한마디는 불만 민원인 응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다. 두 번째 민원인의 불만을 듣기 위해 말을 끊지 않도록 주의하여 잘 경청하고 불만의 문제를 파악해 어려움을 격정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 줘야 한다. 세번째는 변명을 하지 않고 민원인과의 대립의 상황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입장에 서 있음을 느끼도록 한다. 네 번째로 서로 이야기할 때는 낮은 목소리 톤으로 침착한 분위기를 만들어 민원인의 마음을 편하게 한다. 이처럼 불만족 민원을 만족하게 대하는 일은 참 어렵다. 우리는 가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민원인에 대해 아무 불만이 없다, 혹은 만족하고 있다고 잘못 아는 경우가 많다. 불만이 있어도 묵묵히 말하지 않는 고객 뒤에는 같은 불만을 가진 고객이 5배 이상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민원인은 일반적인 물질 서비스나 획일적인 서비스에서는 친절을 느끼고 감동을 느끼지 못한다. 우리의 서비스 태도와 자세, 아름다운 말씨에서 친절 한 서비스를 느끼고 싶어 한다.

전국 꽃배달 서비스

38년 전통 농장에서 직접재배 판매까지

제주에는 꽃보라화원이 책임집니다.

City Flower

동·서양난, 축하, 근조, 각종 관엽식물, 꽃바구니, 꽃다발, 플라워박스, 꽃의 모든것

전국 꽃배달 서비스

꽃보라화원

746-0014, HP 010-3693-5563

(제원사거리 위 국민은행 신제주지점 맞은편 골목)

농장 제주시 용담2동 721번지

모든장원, 실내조경, 가정, 별장, 빌딩조경, 연못, 인공폭포, 잔디, 조경수 판매

꽃보라

꽃보라

746-0014

전화1통화로 꽃배달 OK, 카드결제도 OK (제주시 신광로8길 3) www.boraflower.com

세상의 모든 돌 이야기

수입대리석, 화강석, 라임스톤 판매 및 수입대행

베트남 현무암

완제품 직수입

조경건축토목용 경계석

판석, 부정형난석 등

현무암 경계석

120×150×500 6,500/개당

150×150×500 7,500/개당

170×200×500 12,000/개당

200×250×500 15,000/개당

현무암 판석

600×900×30 21,000/㎡

600×1200×30 21,500/㎡

마블인은 30년동안 이태리, 스페인, 터키 등 세계 각국의 대리석 광산들과 직거래하며 자체 광산을 개발, 수입, 가공, 판매하는 수입식 전문 회사입니다.

하치장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342

공 장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복촌리 952

T. 064)713-6866 / 010-3873-7650

E-mail : marble2017@naver.com / www.marblein.co.kr